

'마음안심버스'가 달립니다

전주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 찾아가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을 주 2회 이상 찾아가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안심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전주시보건소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을 주 2회 이상 찾아가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안심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전주시가 보건복지부 '마음안심버스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돼 상담실의 용도에 맞도록 제작한 마음안심버스는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심층상담을 통한 현장 심리 위기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찾아가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마음안심버스 내부에는 △대기공간 △스트레스 측정공간 △프로그램 및 상담 공간이 마련됐으며, 감염병에 대응한 안전장비도 완비됐다.

마음안심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버스 안에서 △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측정 △정신건강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받게 된다.

보건소는 또 마음안심버스 서비스를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연계를 통해 마음건강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마음안심버스는 올해 전주시 35개동

과 임대아파트, 재난 현장, 사건 신청한 기관 등을 중심으로 순회 운영될 예정으로, 마음안심버스 서비스를 원하는 지역주민 또는 기관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273-6995~6)로 신청하면 된다.

김보영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마음안심버스 운영이 코로나19로 마음이 지친 시민들에게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마음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주시민의 마음 건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마음

안심버스를 통해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돌보고, 정신건강 전문가 심리상담 등을 통해 마음건강도 챙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인식개선, 정신질환자 권익증진,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예방 지원 등 정신건강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자살 및 정신질환, 정신건강 등에 대한 상담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jmind.com)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73-6995~6)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선미촌도시재생민관협의회' 새출발

정기총회 · 사업 공유회 개최... 협의회 명칭 변경 · 새도약 선언

성매매집결지였던 전주 선미촌의 기능전환에 앞장서온 전주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가 선미촌도시재생민관협의회로 새롭게 출발한다.

전주시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위원장 조선희)는 24일 성평등전주에서 여성인권·예술·도시재생 유관기관 관계자와 주민협의체 회장, 전주시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정기총회 및 사업 공유회'를 개최했다.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지난해 말 성매매업소 영업 제로화가 달성됨에 따라 협의회 명칭을 '선미촌도시재생민관협의회'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정관개정 및 신규 위임 위촉 등 조직도 정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선미촌 성매매업소 영업 제로화와 기반시설 및 거점공간 확충으로 인해 '선미촌 2.0' 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각 기관별로 추진되는 사업 공유를 통해 서노송 예술촌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서노송문화플랫폼, 서노송예술촌 지구단위계획 수립 △



전주시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는 24일 성평등전주에서 여성인권·예술·도시재생 유관기관 관계자와 주민협의체 회장, 전주시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정기총회 및 사업 공유회'를 개최했다.

성평등문화공간 조성 △뜻밖의 미술관·놀라운예술터 운영 △물결서사 운영 △새활용센터 '다시불' 운영 △성평등전주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노송천사마을 주민협의체 운영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운영 △선미촌 정월송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논의했다.

조선희 위원장은 "지난 2014년 선

미촌정비민관협의회가 발족한 이후 8년이 되는 시점에서 민관협치를 통해 성매매집결지를 완전폐쇄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향후 선미촌 2.0은 여성인권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적극 반영돼 속도감 있게 도시재생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펜으로 그리며 즐기는 도서관 여행

전주시, 박성민 작가 초청 펜 드로잉 프로그램 진행

'책의 도시' 전주시가 시민과 관광객들이 도서관 여행을 보다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시는 전주역 앞 찻마중길여행자도서관에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성민 작가를 초청해 20~40대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펜 드로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펜 드로잉 프로그램은 책과 도서관이 시민 삶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시민들이 생애주기별로 일상에서 도서관을 여행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오는 5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펜 드로잉 기초부터, 요즘 각광받고 있는 건물 외부 펜 드로잉(익스테리어 펜 드로잉)을 배우며 △찻마중길여행자도서관 △학산숲속시집도서관 △다가여행자도서관 등 특색화도서관을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박성민 작가는 청년물 감성민화작실 대표이자 전주 한옥마을과 전주의 명



소들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주목 받고 있으며,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펜 드로잉 프로그램에 이어 △신년대 대상 '스마트폰 콘텐츠 제작하기' (5월) △청소년을 위한 '사진으로 기록하는 도서관 여행' (7월) 등 생애주기별 '일상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 청장년, 신년대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책과 도서관이 일상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완산·덕진경찰서 공중화장실 현장 점검 추진

전주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완산·덕진경찰서와 함께 공중화장실을 합동 점검하고 안전시설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공중화장실 현장 점검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불법카메라 등 촬영기기를 이용한 성범죄로부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예방 대책이다.

시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공중화장실 80개소에 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안심스크린은 화장실 하단부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해 휴대전화 등 촬영기기의 촬영을 차단해 일명 '물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를 정하고,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디지털 특성화 전문인력 양성 나선다

전주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인공지능·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과정 1기 교육생 모집

전주시가 디지털 전환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디지털 교육 벨리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의 인공지능(AI)·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과정 1기 교육생 160명을 모집한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디지털 특성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준비된 이 교육은 다음 달 4일부터 5월 30일까지 △구직자/재학생(54명) △비전공자 대상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본과정(50명) △재직자 대상 중급과정 교육(50명) 등 3가지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교육대상별로 기본부터 심화단계까지 맞춤형으로 기획해 비전공자부터 재직자까지 수

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동일 수준의 교육생들이 모여 교육의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에서는 이번 1기 교육에 이어 6월에서 10월까지 △NVIDIA사의 글로벌 자격증 과정 △인공지능 딥러닝 설계 △블록체인 프로젝트 과정 등 중·고급 과정이 추가로 개설된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인공지능·블록체인 글로벌 석학 특강 △아이디어 공모전 △인공지능 선진기업 견학 △인공지능 예비창업 특강 등 인공지능 산업 역량강화 및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한컴이카데미는 지난 2020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을 통해 전주 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서 지역 대학생과 취업예정자, 재직자,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왔다.

전주 ICT이노베이션스퀘어는 지난해 507명의 인공지능·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및 취·창업 일자리 창출 등의 실적을 인정받아 2년 연속 권역평가 우수 등급을 획득, 3억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확보하기도 했다.

이번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인공지능/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오는 31일까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교육관리시스템(edu.jc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